

態度內變散과 態도의 構造的 屬性*

李 秀 遠

漢陽大學校 教育學科

I

일찌기 Allport (1937)는 인간의 性向에 관한 전통적인 입장들이 個人差의 本質에 대하여 個別的 接近 (idiographic approach) 보다는 規範的 接近 (nomothetic approach)에 기초하여 전개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規範的 接近은 인간의 性向을 記述하기 위하여 普遍的인 性向次元을 추구한다. 性格의 性向次元이나 態도의 好惡次元은 이러한 例의 하나로서 모든 사람의 性格이나 態度를 이次元 위에 나열시켰다. 따라서 이次元 위에서 개인간의 위치의 차이는 性格이나 態度에서의 개인차로 환원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같은 普遍的次元이 모든 사람의 性格이나 態度를 얼마나 正當하고 適切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規範的 接近에서는 주어진 性向次元과 關係를 맺는 樣式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정되어야 한다. 즉 주어진 性向次元은 모든 사람의 性格이나 態도의 表現樣式에 동등한 正當性 (legitimacy)과 適切性 (relevancy)을 갖는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만일 개인에 따라 주어진次元에서의 性格이나 態도의 記述이 정당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혹은 적절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性向次元에 대한 가정은 성립될 수 없다.

個別的 接近은 바로 이 점을 다루었다. 個別的 接近은 規範的

* 이 연구의 概念形成過程에서 많은 助言을 해준 張聖洙教授와 本學科 大學院生들에게 감사드린다.

立場에서 다루었던 性向次元들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못되며 개인에 따라 주어진 性向次元은 그 正當性이나 適切性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개인은 주어진 性向次元과 “관계를 맺는 양식”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같은 차원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態도와 行動사이의 關係를 다룬 Lapiere (1934)의 고전적 연구에서 중국인 부부와 함께 여행도중 호텔지배인이 중국인에 대하여 취한 行動과 후에 중국인에 대한 態度調査에서 나타난 호텔지배인의 態度 사이에 극적인 불일치를 例로 들 수 있다. 이 예에서 백인 신사와 함께 동행하는 중국인에게 대하는 행동과 전혀 미지수인 중국인에게 취한 態度를 같은 次元에다 놓고 볼 수 있겠는가? 연구자는 이 두가지 장면에서 유발된 反應을 중국인에 대한 好惡感이라는 하나의 態度次元에다 놓고 비교하였다. 그리하여 두 反應 즉 態도와 行動 사이에 相關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두 反應이 서로 다른 차원 즉 전자는 백인 신사에 대한 信賴感에서 그리고 후자는 중국인에 대한 好惡感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들 사이에 직접적인 비교는 이미 성립될 수 없다. 다시말해서 주어진 차원에 대한 適切性에서 서로 다른 두 반응을 비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위의 두 장면에서 연구자가 미리 선정한 중국인에 대한 好惡感이라는 概念은 호텔지배인의 “반응”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머리” 속에서 만들어 졌던 概念일 수도 있다.

여기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에 따라 어떤 호텔지배인은 이 두 장면에 대하여 중국인에 대한 好惡感이라는 하나의 次元에서 반응을 하는 반면에 다른 호텔지배인은 주어진 장면에 따라 好惡感和 信賴感의 서로 다른 차원에서 반응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전자의 경우에는 연구자의 意圖대로 피험자가 반응을 하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연구자의 머리속에서만 있고 실제 피험자의 行動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반응을 얻게 된다. 標集對象 중에 후자와 같은 피험자가 많을수록 態도와 行動사이의 일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볼때 態도와 行動사이의 불일치의 원인은 피험자 자신에게서 오는 문제라기 보다는 주어진 次元과 關係를 맺는 樣式에서 연구자와 피험자 사이에 혹은 피험자 개개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

一致에 기인하는 것이다. 환원하면 態度와 行動사이의 不一致는 연구자가 미리 선정해 놓은 상황과 행동의 標集範圍안에 얼마나 많은 피험자가 포함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문제는 規範的 接近이 보편적인 인간의 性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性向을 지나치게 획일화된 틀속에 規範化시킴으로써 필연적으로 빚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인간의 性向은 個別的 接近을 통하여 보다 가까이 接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個別的 接近은 본질상 “모든 사람은 그밖의 모든 사람과 다르다”는 명제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命題를 받아들이는 한 規範科學으로서의 心理學은 성립할 수 없다. 심리학의 목표가 보편적인 規範的 原理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개별적 접근은 심리학을 말살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個別的 接近을 받아들일 때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항상 의문으로 남게 된다. 個別的 接近을 지지하는 임상심리학자들의 臨床判斷을 종합한 한 연구에서 “전문적인 임상가들의 판단사이에는 비록 그것이 같은 환자의 같은 특성을 진단한 것일지라도 판단에 이용된 자료가 서로 다를 때에는 그들 간에 相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인상적인 결론을 얻고 있다 (Goldberg와 Werts, 1966, P. 205). 이와같은 상황에서 인간의 性向에 대한 보편적인 原理의 추구는 비관적일 수 밖에 없다.

심리학이 인간을 이해하는 學問인 이상 보편적 原理를 추구하는 규범적 입장을 지양할 수는 없다. 문제는 개별적 접근에서 제기된 論據를 규범적 접근이 어떻게 소화하여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規範科學을 전개하는가에 달려 있다. 두 接近사이에는 앞에서 지적된 것처럼 넘어설 수 없는 벽이 가로 놓여 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그 갈등의 본질은 의외로 단순한 것일 수도 있다.

規範的 立場과 個別的 立場사이의 갈등의 뿌리는 적어도 방법론적 접근에서만 볼 때 연구에서의 分析의 주도권을 심리학자인 연구자가 장악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分析對象인 被驗者에게 부여하려고 하는가에서 찾을 수 있다. 個別的 接近은 어떤 사람이 어떤 狀況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연구자가 미리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피험자로 하여금 스스로 이를 선정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자가 일

방적으로 선정한 그러나 피험자에게는 찾아 볼 수 없는 인간의 性向에 대한 規範的 假定이라는 스스로가 파놓은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規範的 입장과 個別的 입장의 갈등은 어떤 사람의 어떤 行動을 어떤 狀況에서 연구할 것인가를 決心할 權利를 연구자가 포기하기를 거부할 때 야기된다. 즉 個別的 接近의 論理는 이 權利를 被驗者 자신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 論理를 Bem과 Allen (1974)은 “日常的 思辨은 規範的 추리보다 個別的 추리를 쫓아서 일어난다. 누가 친구의 特性을 물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고정된 性向次元에서 그를 記述하지 않는다. 차라리 사전에 나와있는 것 중에 그에게 꼭 알맞는 性格特性을 몇 개 선정하여 表現하고 나머지 부적절한 17,993개의 性格特性을 버리는 절차를 밟는다” (P. 510)고 적절하게 表現하고 있다. 이 글은 연구자가 인간의 性向에 대하여 미리 획일적인 次元을 설정해 놓을 경우 그 次元으로 적절하게 記述될 수 없는 많은 피험자들을 빠뜨리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여 준다. 또한 연구실체에서 이와같은 피험자가 많게 되면 雜音(noise)이 비례적으로 커지므로 연구의 妥當度가 그만큼 떨어지는 결과를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연구에서 이 문제를 克服하는 한 가지 길은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자가 설정해 놓은 性向次元이 개개의 피험자들에게 얼마나 적절한 것인가를 알아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性向次元으로 적절하고 정당하게 記述될 수 있는 개인만을 피험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個別的 接近의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 人間性向에 대한 새로운 規範的 接近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주어진 性向次元에서 적절하게 혹은 부적절하게 記述되는 個人的 特性은 무엇인가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人間の 性向에 대한 새로운 地평을 열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노선을 쫓아 인간의 性向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Bem과 Allen(1974)은 性格特性理論家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했던 性格次元들은 일부 사람들의 性格을 기술하기에만 적합한 것이었음을 밝혔다. 그들은 이것을 性格의 一貫性 문제로부터 접근했다. 일반적으로 性格은 個人的

行動에 一貫性和 持續性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 주어진 性格次元에서 그의 性格의 一貫性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차원과 상응하는 행동에서도 일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標集對象중에 일부 사람들은 주어진 性格次元으로 그의 성격을 대표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음이 드러났다. Snyder와 Monson(1975)은 기존의 性格次元에서 측정된 개인의 性格은 그의 또 다른 하나의 性格次元인 自己調整 (self monitoring)의 방향에 따라 그것이 行動으로 표현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自己調整을 外的 狀況으로 하는 사람은 內的 性向으로 하는 사람보다 性格과 行動사이의 一貫性이 없다는 것이다. 즉 性格이 行動으로 表現되는 과정에서 自己調整이라는 性格特性이 媒介變因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앞에서 예시한 연구들은 종래의 規範的 接近이 보편적인 인간의 性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획일화된 性向次元에다 모든 사람을 記述하려는 誤謬를 반증한 것으로 그와같은 획일화된 性向次元으로 적절하게 表現될 수 있는 개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개인도 있다는 것을 經驗的으로 입증하고 있다. 개인에 따라 주어진 性向次元에서 그의 性向이 正當하고 適切하게 表現되는 정도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規範的 接近이 지향했던 개인간 (inter-personal)의 문제 즉, 모든 사람을 記述해 주는 보편적인 性向次元을 설정함으로써 이 次元에서의 個人間的 위치의 차이를 그들간의 性向에서의 차이로 환원하려 했던 생각은 일단 보류할 수밖에 없다. 주어진 性向次元으로 記述된 개인의 性向들이 그次元과의 관계양식에서 서로 다른 正當性和 適切성을 갖는 것들이라면 그들간의 비교는 이미 무의미한 것이다. 개인차의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탐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먼저 개인내 (intra-personal) 문제 즉 주어진 性向次元과의 관계양식에서 어떤 개인의 性向을 어떻게 해서, 그리고 왜 正當性和 適切성을 갖게 되는가를 밝혀야 한다. 그리하여 보편적 性向次元으로 적절하게 記述되는 개인과, 그렇지 못한 개인사이의 특성이 드러남으로서 보편적 성향차원의 特性이 먼저 재조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性向을 개인내적으로 조명한 연구들은 별로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인간의 社會的 行動을 결정하는 性向으로 알려진 態度를 개인내적과정으로 분석한 연

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다음 절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II

인간의 性向에 關한 종래의 연구들이 規範的 接近을 시도 함으로써 방법론적으로 개인간 패러다임 (inter-personal paradigm)에 너무 경주되어 왔다는 점을 앞 절에서 지적하였다. 規範的 接近은 普遍的 性向次元을 설정함으로써 그 次元에서의 개인간의 위치상의 차이를 性向에서의 차이로 환원하려 했다. 그러나 個別的 接近에서는 그렇게 환원된 개개의 性向들이 주어진 性向次元과의 關係樣式에서 서로 다른 正當性和 適切性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들간의 비교는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어진 性向次元에서의 개인차는 먼저 그 性向次元으로 환원된 개개의 性向들이 얼마나 정당하고 적절하게 記述된 것인가를 알아본 연후에 물음되어야 한다. 즉 人間性向에 대한 개인내 패러다임 (intra-personal paradigm)이 방법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狀況은 態度概念에서도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態度는 개인의 社會的 行動을 설명하기 위하여 설정된 概念으로 “心理的 대상에 대하여 好意 혹은 非好意的인 반응을 결정하는 학습된 개인의 內的性向 (Predisposition)” 으로서 일반적으로 定義될 수 있다 (Fishbein과 Ajzen, 1975, P. 6). 또한 이 定義에서 개인의 內的性向은 오늘날 보다 정교화하여 認知的, 感情的 및 行動的 要素들이 복합적으로 構成되어 있는 持續的인 일종의 精神體系 (mental system)로서 이해된다. 여기서 認知的 要素는 態度對象에 대한 信念들을, 感情的 要素는 信念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情緒를, 그리고 行動的 要素는 行動에 앞서 갖게되는 意圖를 함축하고 있다. 한 例로서 “吸煙”에 대한 態度는 “부모가 반대한다”라든지 “지루함을 메꿔준다”와 같은 信念과 이들 信念이 內包하고 있는 매력이나 호감과 같은 感情과 흡연을 “하고싶다”와 “하지 않겠다”와 같은 行動意圖의 세가지 요소가 함축된 하나의 持續的 精神體系이다.

그런데 態度에 대한 이와같은 概念的 定義는 그것에 대한 操作的

定義와 混線을 빚고 있다. 概念的 水準에서 態度는 個人差와는 무관하게 定義되고 있다. 그러나 操作的 水準에서 態度는 個人差를 測定하기 위해서 설정된 概念으로 轉倒되었다. 標準化 態度測定 技法에서 態度의 測定은 여러개의 態度陳述들에 대한 反應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여기서 態度陳述은 態度對象에 대한 信念의 陳述로서 態度는 일반적으로 信念水準에서의 개인의 反應을 토대로 測定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종래의 態度測定技法에서 태도를 測定하기 위하여 선정하는 信念들은 被調査者들 사이에 個人差가 두드러지게 빚어질 수 있는 것으로만 제한하였다. 個人差를 드러내지 못하는 信念들은 選別的으로 제거시켰다.

標準化 技法중의 하나인 等顯間隔法 (Thurstone 과 Chave, 1929)은 態度陳述을 選拔하는 基準중의 하나로서 不適合度 (irrelevancy)를 提示하였다. 이 指標은 주어진 態度陳述이 個人差를 얼마나 잘 辨別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서로 相異한 態度를 가진 사람들이 주어진 陳述에 贊同하는 率이 높을 수록 그 陳述은 不適合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不適合도가 높은 陳述은 選別的으로 態度尺度에서 탈락시켰다. 같은 標準化 技法으로서 總合評定法 (Likert, 1932)은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內的合致度 (internal consistency)를 구했는데 態度가 서로 相反되는 두 집단 즉 好意的 態度集團과 非好意的 態度集團을 구분하여 주어진 陳述에 대한 贊同率에서 두 집단사이에서 얼마나 크게 差異가 나는가를 알아보았다. 그리하여 두 相反集團사이에서 贊同率에서 差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陳述은 態度尺度에서 탈락시켰다.

態度測定技法들에서 나타나는 이와같은 문제를 Fishbein 과 Ajzen (1975)은 “標準化 態度尺度는 個人的 態度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많은 信念들을 態度尺度에서 탈락시켰다. 예컨대, 선거일 후보자에 대한 態度는 후보자가 소속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評價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 ‘후보자 X는 민주당 소속이다’와 같은 信念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피조사자 모두가 그 信念에 贊同을 할 것이며 態度尺度에서는 탈락된다.” (P. 86)고 하면서 被調査者 모두가 贊同하는 혹은 反對하는 信念이라 하더라도 態度決定에 영향을 미치는 信念이라면 態度尺度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筆者 (1981)는 態度가 相反되는 두 集團사이에서 同一한

態度對象에 대하여 同一信念을 서로 共有하고 있는 정도를 測定하였다. 두 集團 사이에 態度가 한 集團은 극히 好意的인 반면에 다른 集團은 극히 非好意的이어서 극단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두 집단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共通信念의 量은 각 集團에만 特有하게 나타나는 差異信念의 量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네 가지 態度對象에서 全體放出信念중에 共通信念의 量은 71%를 점유하는 반면에 差異信念은 29%정도만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개인의 全體信念중에서 그 만이 갖고 있는 差異信念은 극히 일부로서 빙산의 일각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態度測定技法들에서는 개인내의 共通信念을 態度尺度에서 전적으로 배제시키고 개인간의 差異가 있는 信念만을 態度尺度에 取擇함으로써 個人差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態度를 操作하였다. 이 操作에서 測定된 態度가 態度對象에 대한 개인의 信念構造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시키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일단 접어 두고 주어진 好惡次元에다 모든 사람의 態度를 나열시키는데에만 역점을 둔 인상이 짙다. 이 문제는 앞 절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規範的 接近이 모든 사람의 모든 상황에서의 모든 대상에 대한 態度를 보편적 性向次元으로서의 好惡次元에다 位置시키려는 데서 야기된다. 그리하여 好惡次元에서의 개인간의 位置의 差異를 態度에서의 個人差로 환원하려 하였다. 이 발상은 個人間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規範的 接近에서 불가피하게 견지할 수 밖에 없는 圖式인 것이다. 왜냐하면 個人差가 성립하려면 모든 사람을 거기에 나열시킬 수 있는 次元 내지는 準據가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個人差를 문제로 삼는 한 보편적인 性向次元을 指向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주어진 性向次元이 개개인의 性向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적어도 規範的 接近에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態度에서 이 문제는 다른 어떤 性向에서보다도 명료하게 부각된다. 態度는 信念水準에서 測定된다. 따라서 態度를 결정하는 下位構造가 다른 性向에서 보다 비교적 명확하고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態度의 下位構造的 屬性인 態度對象에 대한 信念들은 態度의 定義에서도 반영되었듯이 經驗을 통하여 學習된 것으로 알려졌다. Fishbein (1963)은 그의 態度形成理論에서 이 사실을 “첫째, 개인

은 社會的 對象에 대하여 다수의 信念을 갖고 있다. 둘째, 개개의 信念은 內顯的 評價反應 (implicit evaluative response) 즉, 態度와 결합되어 있다. 셋째, 條件反射를 거쳐 이 內顯的 評價反應이 態度對象과 결합된다. 넷째, 이렇게 결합된 內顯的 評價反應들이 하나로 統合된다. 다섯째, 그리하여 態度對象은 이 하나로 統合된 內顯的 評價反應 즉 態度를 유발하게 된다” (P. 233)고 지적하고 있다. 이 견해에서 態도의 下位構造로서의 信念의 內容은 學習의 量과 質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았다. 학습의 量이 증가할 수록 態度對象과 信念의 結合은 강화될 것이며 學習의 質이 풍부할 수록 態度對象과 결합되는 信念들도 다양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즉 態度對象에 대한 개인의 經驗의 幅과 內容은 그 對象과 결합하는 信念의 強度와 種類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學習을 통하여 態度對象과 결합하는 信念들은 그 對象과의 관계에서 무질서하게 結集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Jones와 Gerard (1967)는 態도의 構造를 水平的 構造와 垂直的 構造로 구분하였다. 그들은 態度를 三段論法的 演譯으로 記述하였는데 “게으른 것은 나쁘다”는 信念을 大前提로, “그는 게으르다”라는 態度對象과 信念의 결합을 小前提로 하여 “그는 나쁘다”는 對象에 대한 態度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態도의 垂直的 構造는 태도의 演譯에서 기초가 되는 전제들이 그에 선행되는 또 하나의 演譯의 결론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같이 최초의 態度陳述로부터 최종 결론이 되는 態度陳述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演譯의 단계들로서 이루어진다. 반면에 水平的 構造는 態度對象에 대한 이와같은 여러 垂直的 演譯에서 최종적으로 얻어진 態度陳述들의 集合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態度는 여러 垂直的 構造에서 최종적으로 연역되어 水平的 構造로 드러난 태도진술들 즉, 개개의 信念의 內顯的 評價反應들의 集合의 산물로서 表現될 수 있다.

이상의 態度에 관한 發生的 내지는 構造的 견해로부터 우리는 好惡次元上的 位置로서의 종래의 態度操作에 대하여 懷疑를 갖게 된다. 構造的 側面에서 태도는 그 가지수와 내용에서 다양한 信念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들 信念은 다시 서로 力動的인 관계를 갖고 全體에 統合되어 있다. 따라서 태도의 好惡次元에서 실사 같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태도의 構造에서도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은 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서로 構造的 屬性이 다른 사람들의 態度를 같은 次元에다 놓고 비교한다는 것은 規範的 接近의 문제로서 지적된 주어진 차원의 正當性과 適切性의 문제가 제기된다. 態度의 構造的 屬性으로서의 信念들의 種類나 內容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같은 次元에다 놓고 비교한다는 것은 이들 構造的 차이가 그 次元으로 측정되는 態度의 正當性이나 適切性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前提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態度 그 자체가 이 構造的 屬性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산물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그 前提는 모순된 결과를 빚게 된다. 결국 종래의 態度測定에서는 態度의 構造的 屬性에서 빚어지는 個人差를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에 好惡次元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개인들은 그들의 態度의 構造的 屬性도 동일한 것으로 설정한 것이 되었다. 환원하면 好惡次元에 대한 規範的 假定으로 말미암아 態度의 構造的 屬性에서 나타나는 個人差를 획일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態度의 構造的 屬性에서 나타나는 個人差는 다각적으로 接近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態度의 下位構造로서 信念體系의 全體의 방향은 態度의 好惡次元에 位置시킬 수 있다. 그러나 信念은 態度로 통합되기 이전에 그 자체의 內顯的 評價反應 즉, 態度와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態度의 構造속에 내포되어 있는 個個의 信念은 그 자체가 또한 態度次元위에 위치할 수 있음을 意味한다. 따라서 이들 信念을 態度로 統合하는 過程에서 목음의 誤差가 必然的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목음의 誤差는 두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信念의 가지수에서 서로 다른 개인들을 획일화함으로써 나타난다. 주어진 態度對象에 대한 信念의 가지수는 그 대상과의 經驗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존의 態度로는 이 가지수에서의 個人差를 반영시킬 수 없다. 그리하여 Irwin, Tripodi 및 Bieri (1967)은 個人的 信念의 가지수를 그의 信念의 復雜性으로 接近하였으며 Harvey, Reich 및 Wyer (1968)은 이를 信念의 分化性으로 概念化하였다. 이들은 信念의 가지수에서의 개인간의 차이는 그의 態度의 강도뿐만 아니라 방향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信念의 內容과 연관되는 것으로 개개의 信念들의 內

顯的 評價反應들이 態度로 통합됨으로써 이들 評價反應들의 變散度에서의 개인간의 차이를 획일화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어진 점수들의 平均이나 總和를 구할 때는 반드시 개개의 점수와 평균사이의 차이에서 오는 偏差가 있게 마련이라는 統計的 論理를 감안할 때 典型的인 誤差의 오차로 看做될 수 있다. 개개의 信念은 그 자체의 內顯的 評價反應 즉 態度를 갖고 있으며 이것들도 態度와 마찬가지로 態度次元위에서 나열될 수 있다. 따라서 個人은 이들 內顯的 評價反應의 平均으로서의 態度뿐만 아니라 이 過程에서 얻어지는 變散度도 함께 共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態度測定에서 이 變散度는 단순한 測定誤差로서 무시했다. 그 예로서 等顯間隔法에서 개인의 態度는 그가 자신의 態度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세개의 態度陳述을 態度尺度로부터 取擇케 했는데 그의 態度는 取擇된 세개의 態度陳述의 尺度值들의 平均이나 中央值를 구함으로써 얻어졌다. 이때 이 세개의 尺度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變散度에서의 個人差는 무시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提起한 論理에서 볼 때 이 變散度에서의 個人差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信念들간의 異質性的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指標가 될 수도 있다. 이 指標는 한 個人內에서 信念들이 얼마나 同質的인가 혹은 異質的인가를 態度次元으로 환원시켜 알아 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종래의 態度測定技法들은 態度에서의 變散度を 문제 삼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變散도가 서로 다른 態度들을 好惡次元으로 환원할 때 그것들이 그次元에서 얼마나 適切하게 記述될 수 있는가에 있다. 현재로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확실하지가 않다. 그러나 統計的으로 標準偏差가 서로 다른 平均들을 상호 비교할 때 提起되는 문제들이 또한 變散도가 서로 다른 態度들을 비교할 때에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상에서 態度의 構造的 屬性에서 나타나는 個人差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態度構造에서의 이와같은 個人差는 好惡次元으로 환원된 態度의 適切性이나 正當性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 論議는 모든 사람의 態度를 好惡次元上에서의 位置로 나열시켜 그들간의 차이를 態度에서의 차이로 환원시켜 비교하려 했던 規範的 接近의 문제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주어진 態度次元에서의 個人差는 먼저 그次元으로 表現된 개개의 態度가 얼마나 正

當하고 適切하게 기술된 것인가를 알아본 후에 시도되어야 한다. 즉 態度的 構造的 屬性에서의 個人差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態度的 構造的 屬性에서 나타나는 個人差로서 나열된 것중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個人的 態度構造的 同質性和 異質성을 나타내는 指標으로써 態度에서의 變散度 즉, 態度內變散 (intra-attitude variability) 을 經驗的 根據를 토대로 추구하고 있다.

III

態度에 대한 종래의 規範的 立場이 態度的 構造的 屬性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앞 절에서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態度的 한 構造的 屬性으로서 態度內變散을 제기하였다. 態度內變散은 주어진 態度對象에 대한 개인의 信念體系의 同質性的 정도로서 定義될 수 있다. 態度對象에 대한 信念體系에서 개개의 信念들은 그 자체가 內顯的 評價反應 즉 態度를 갖고 있는데 態度內變散은 이들간의 同質性 내지는 異質性的 정도를 나타내는 指標이다. 이 指標의 測定은 종래의 態度測定技法을 이용하여 도출될 수 있다.

態度測定에서 聯想技法의 도입을 제안한 Fishbein(1963)은 態度를 態度對象에 대한 繼續的 統制聯想에서 방출된 信念들의 總和로 보았다. 態度는 放出된 개개의 信念에서 信念內容에 대한 內顯的 評價反應 즉 好惡價(a_i)와 주어진 信念과 態度對象간의 關係의 程度 즉 蓋然度(B_i)를 交積하여 總和($\sum B_i a_i$)를 구함으로써 얻어졌다. 여기서 信念들이 態度로 통합되기 전에 개개의 信念자체의 好惡價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變散度 ($1/N \sqrt{N \sum (a_i)^2 - (\sum a_i)^2}$)를 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각각의 信念好惡價에 蓋然度를 交積하여 무게까지를 고려한 信念들의 變散度 ($1/N \sqrt{N \sum (B_i a_i)^2 - (\sum B_i a_i)^2}$)도 구할 수 있다. Fishbein은 그의 態度測定에서 이 態度內變散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공식에서 개개의 信念은 그 자체가 또한 內顯的 評價反應 즉 態度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信念이 지니고 있는 個別性を 무시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의 公式에서 態度는 信念들의 단순한 總和로써 要素의 合은 全體가 된다는 要素主義的 論理를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構造主義 (structuralism)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信念과 態

도를 質的으로 다른 것으로 다루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論理는 信念과 態度가 동일한 條件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각 信念에 대한 內顯的 評價反應은 態度로 통합하기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態度와 동일한 수준에서 그것의 個別性を 인정해야 한다. 마치 주어진 測定值들이 平均으로 合算된다고 해서 그 測定值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그 測定值의 個別性이 무시될 수도 없는 것처럼 개개의 信念을 態度로 통합시킨다고해서 그것의 값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주어진 平均은 그것과 더불어 개개의 점수의 分布를 알 때 더욱 풍부한 의미를 갖게되는 것처럼 주어진 態度는 그것을 구성한 개개의 信念의 內顯的 評價反應의 分布를 이해할 때 더욱 풍부한 의미를 갖게 될 수도 있다.

한편 態度測定의 전통적 방법으로 態度陳述文을 이용한 Thurstone의 等顯間隔法을 비롯한 제반 기법에서 앞 절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개인의 態度는 態度尺度를 구성하는 標準化된 態度陳述중에서 자신의 態度와 일치되는 陳述를 선택하게 하여 이들 贅擇陳述의 尺度值의 中央值를 가지고 구하였다. 이 때 개인이 贅擇한 陳述들의 尺度值에서 變散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것은 態度를 얻기 위하여 中央值를 구하는 과정에서 贅擇된 陳述의 尺度值에서의 變散度 즉 贅擇된 陳述를 等位로 놓았을 때 75%에 해당하는 陳述의 尺度值 (Q_3)와 25%에 해당하는 陳述의 尺度值 (Q_1)을 가지고 四分偏差 ($Q_3 - Q_1 / 2$)를 구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그동안 이러한 贅擇陳述의 尺度值간의 變散度는 被驗者가 범하는 誤謬로 간주되어 無選的 誤差로 무시되었다. 물론 贅擇陳述에서의 變散이 부분적으로는 被驗者가 범하는 문항선택에서의 誤謬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誤謬가 개인내에서 一貫性있게 나타난다면 이를 無選的 誤差로서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Thurstone 型 態度尺度에서 態度의 誤差變量 즉 變散度を 감안하지 않는것은 아니다. 개인의 態度는 일정한 標準誤差를 갖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 때 態度의 標準誤差는 個人差를 무시한 平均의 의미를 지닌 誤差로서 모든 사람에게 一律的으로 적용되는 常數인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의 態度로써 환원된 개인에 中央值에 대한 變散度는 아니다. 이와같은 발상은

개인에 의해서 贅擇된 陳述들의 尺度值간에 나타나는 變散度を 단순한 無選的 誤差로서 간주하였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그러나 贅擇된 陳述들이 態度對象에 대하여 개인이 갖고 있는 信念들을 代表한다고 보았을 때 贅擇陳述에서의 變散은 근본적으로 態度內變散이라는 態度的 構造的 特性인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態度內變散의 操作에 관한 논의에서 態度內變散이 態度와 유리되어 있는 概念이 아니며 態度的 測定過程에서 測定된 態度的 構造的 性質을 드러내기 위하여 벌써부터 提起되어야 할 概念임을 밝혔다. 따라서 態度內變散에 대한 測定이 態度에 대한 測定과 別個로 存立할 수는 없다. 態度的 測定技法이 다양한만큼 態度內變散의 測定技法도 다양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測定技法에 따라 개인의 態度가 잘 드러나는 것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 것처럼 態度內變散도 測定技法에 따라 그 選好도가 다를 수 있다. 張聖洙(1982)는 동일피험자들에게 Fishbein의 測定技法과 Thurstone의 測定技法으로 態度內變散을 구했다. 그리하여 양자사이에 $r=.27$ 로써 有意한 相關을 얻었다. 그러나 이 相關係數는 동일한 態度對象에 대한 反復測定值의 相關으로는 매우 낮은 것으로써 여기서 두 測定方法에 따른 測定值들이 異質的임을 주목된다.

Fishbein 技法은 주어진 態度對象에 대하여 聯想을 받을 때 그 內容이나 가지수에 대하여 인위적인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個人的 全體信念이 放出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測定된 態度內變散은 주어진 對象에 대한 개인의 信念體系가 비교적 있는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Thurstone 尺度에서 態度陳述은 앞 절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개인간에 차이가 나는 信念들만을 가지고 구성된다. 따라서 여기서 얻어지는 態度內變散은 개인의 일부 신념 그것도 個人差가 빚어지는 信念만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個人的 信念體系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個人差에 역점을 두고 測定한 態度的 또 다른 하나의 指標로써 간주될 수 있다. 이 사실은 Fishbein 技法에서 態度極斷度 즉 好惡方向은 고려하지 않은 好惡次元上에서의 個人的 位置와 態度內變散은 相關이 없었으나 ($r=.05$), Thurstone 尺度에서는 높은 負的 相關($r=-.78$)이 나왔다는 결과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그리하여 筆者(1982)는 Fishbein의 聯想技法을 통하여 態度內變

散을 구한 후 이 과정에서 被驗者가 放出한 信念들로부터 42 가지의 態度陳述을 구성하였다. 각 陳述에 대한 被驗者의 反應은 Thurstone 式으로 자신의 態度와 일치되는 陳述만을 贊擇하는 方法을 擇하지 않고 Fishbein 方法으로 各개의 陳述의 好惡價와 蓋然度를 被驗者에게 評定시키는 方法을 擇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態度內變散과 앞의 聯想技法으로 얻어진 態度內變散사이의 相關은 $r = .69$ 로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態度內變散이 信賴로운 指標가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Thurstone 尺度로 얻어진 態度內變散과 Fishbein 技法의 態度內變散만의 相關이 낮게 나온 原因으로 두 方法에서 선정한 態度陳述 즉 信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지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態度內變散의 操作과 그에 따른 信賴度의 分析은 그에 앞서 이 變因의 正體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는다면 無意味한 作業이 되기 쉽다. 態度內變散의 概念化 作業은 앞에서도 示唆한 것처럼 態度를 構造的인 側面에서 재조명하는데 意義가 있다. 즉 態度를 단순히 好惡次元의 極斷度로만 볼 것이 아니라 態度對象에 대한 信念들로 구성된 構成體 (Constructs)로 把握시켜준다. 態度內變散은 이러한 態度構造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것은 態度의 無選的인 個人的 誤差가 아니라 態度를 構成하는 認知的 內容들이 갖는 意味의 다양성을 함축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認知複合性이나 認知分化성과 같은 概念과도 다르다. 이들 概念은 個人的 환경에 대한 認知樣式으로서 그의 성격의 일부로 간주된 반면에 態度內變散은 주어진 態度對象에 대한 認知內容을 態度次元으로 환원시켜 表現한 概念이다. 따라서 態度內變散은 認知內容 그 자체의 다양성이 아니라 그것이 態度次元으로 환원되어 表現된 感情內容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볼 때 態度內變散은 態度對象에 대한 態度가 分化된 정도를 意味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態度가 分化된다는 것은 態度對象에 대하여 分化된 만큼의 感情價를 갖는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 견해는 동일 態度對象에 대하여 개인이 여러개의 態度를 가질 수 있다는 Tesser (1978)의 생각과 일치된다. 그는 개인의 순간적 態度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信念들이 이에 關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思考의 결과로써 우세하게 된 信念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때 그때

의 思考에 따라 우세해지는 信念들이 變化하기 때문에 개인의 態度는 수시로 變化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개인들의 信念構造에서 個人差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思考의 결과로서 態度가 變化하는 정도는 態度對象에 대하여 個人이 갖고 있는 信念들의 異質性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同質的인 信念들만 갖고 있는 個人에서는 態度의 變化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態度內變散은 思考의 결과로서 變化하는 態度의 變散範圍를 결정하는 個人內 圖式으로서 간주할 수도 있다.

態度內變散이 態度에 미치는 이러한 기능은 그동안 몇몇 연구를 통하여 解明되었다. 筆者(1982)는 態度의 行動豫言力에 관한 論爭을 해결하기 위하여 態度의 構造的 屬性으로써 態度內變散을 도입했다. 態度는 社會的 行動을 설명하기 위하여 설정된 概念으로써 만일 態度가 行動의 豫言力이 없다면 그 成立理由를 잃게 된다. 그러나 개인의 態度가 그의 行動의 指標가 되지 못한다는 연구들이 나타나 論爭을 일으켰다 (Wicker, 1969). 그런데 이 論爭은 앞의 態度內變散의 概念化에서 提示된 論理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提起되어야 할 性質의 것이다. 종래의 態度概念은 好惡次元에서 획일화된 고정된 態度였는데 반하여 우리가 설정한 態度內變散概念에서는 개인의 信念構造의 異質性에 따라 동일 態度對象에 대하여 다양한 態度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종래의 態度概念으로 그의 行動을 豫測할 수 있는 사람은 同質的인 信念構造를 갖고 있는 즉, 態度內變散의 정도가 낮은 일부 사람뿐이고 많은 異質的인 信念構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의 태도으로써는 그의 行動을 豫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은 Tesser의 말을 빌리면 시시각각으로 變化하는 思考에 따라 態度를 결정하는 우세한 信念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종래의 획일화된 태도으로써는 그의 行動을 豫測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다.

筆者의 연구에서 態度內變散의 정도가 낮은 被驗者 集團과 높은 被驗者 集團을 分類하여 각 集團에서 그들의 態度와 行動의 一致度を 구해 본 결과 낮은 집단에서는 이 양자간의 相關이 $r=.56$ 이나와 有意하였으나 높은 집단은 $r=.20$ 이 나와 意義가 없었다. 또한 이 두 相關係數間의 差異도 유의하게 나와 態度內變散이 낮은 즉 同質的인 信念構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종래의 態度測定方法

으로 그의 行動을 豫言할 수 있으나 態度內變散이 높은 사람은 豫言할 수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렇다면 態度內變散이 높은 被驗者에게서 態度와 行動의 不一致가 왜 증가하는가 하는 分析에서 態度內變散이 높은 집단은 주어진 行動狀況에 따라 그의 態度가 수시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즉 異質的인 信念構造를 갖고 있는 개인들은 態度의 分化의 정도가 同質的인 信念構造를 갖고 있는 被驗者보다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結果는 張聖洙(1982)의 연구에서도 거듭 입증되고 있다. 態度內變散의 정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態度로부터 行動을 豫言할 때 豫言誤差가 더 크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態度內變散이 態度를 가지고 行動을 豫言할 때 나타나는 豫言誤差의 決定要因이 될 수 있음을 밝히어 態度內變散을 통한 行動의 確率的 豫言의 길을 터 놓았다. 態度內變散은 주어진 態度의 行動豫言力 즉 行動豫言誤差를 豫言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종래의 態度概念에서 추구되었던 態度次元上的 한 點으로부터 行動次元上的 한 點에 대한 豫言과 비교할 때 態度와 行動의 關係에 대하여 새로운 조망을 갖게 한다. 물론 기존의 態度概念에서 行動豫言에 豫言誤差를 감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때 사용한 標準誤差는 行動豫言誤差의 個人差를 무시한 平均의 意味를 갖는 豫言誤差로서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態度內變散概念의 定立은 行動豫言誤差의 個人差를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意味에서의 行動의 確率的 豫言에 대한 基礎를 提供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態度의 構造的 屬性으로써 態度內變散의 探究는 아직 시발점에 서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종래의 態度測定에서 態度內變散의 成立根據는 충분히 示唆받을 수 있다. 또한 그 測定操作의 信賴性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態度의 構造的 屬性으로써 態度內變散이 態度에서 갖는 位置와 役割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결론도 얻지 못하고 있다. 態度와 態度內變散은 어떤 關係를 갖는 것인가? 態度內變散이 態度에서 갖는 機能은 무엇인가? 態度內變散을 前提할 때 종래의 態度概念은 어떠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가? 와 같은 물음은 앞으로 더 추구되어야 할 과제로서 남아있다. 그리하여 다음 절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앞 절에서 態度的 構造的 屬性을 드러내는 하나의 指標로서 態度內變散을 概念化하였다. 태도내변산은 個人內變散으로써 태도대상에 대한 信念들의 異質性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종래의 態度測定에서는 간과되었다. 標準化 態度測定에서는 태도를 態度對象에 대한 信念들의 好惡價의 總和나 平均으로 보았다. 여기서 信念들이 태도로 統合하기 이전에 개개의 信念의 好惡價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變散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 않았다. 이 變散은 단순한 無選的 測定誤差로써 간주되어 무시되었다. 그러나 앞 절에서 이 測定誤差가 個人內에서 一貫性있게 나타나 개인의 態度的 構造的 特性을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임이 밝혀졌다.

종래의 態度測定에서 態度內變散을 그와같이 간과하게 된 것은 기존의 態度概念이 지나치게 規範的 立場에 치우쳐서 태도를 操作하려 했던 데에 연유하고 있다. 規範的 接近은 人間性向에 대한 문제를 個人間的 過程으로부터 접근하려 했다. 모든 사람을 그위에 다 기술할 수 있는 보편적인 性向次元을 설정함으로써 이 次元에서의 個人間的 位置의 차이를 주어진 性向에서의 個人間的 차이로 환원하려 했다. 태도에 대한 規範的 立場도 이 論理에 쫓아 모든 사람의 모든 대상에 대한 態度를 好惡次元上에 나열시켰다. 그리하여 이 次元에서의 個人間的 位置의 차이를 태도에서의 個人間的 差異로 환원시켰다. 이 접근은 個人間 패러다임을 쫓는 規範的 接近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個人差를 빚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거기에다 놓고 비교할 수 있는 共通次元의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要件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態度內變散과 같은 個人內過程은 이 접근에서 거론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러나 規範的 立場은 보편적인 性向次元을 추구하는 過程에서 개인의 性向을 지나치게 획일화된 틀 속에 規範化함으로써 개개인의 固有性을 말살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태도에서도 주어진 好惡次元이 개인의 태도의 構造的 屬性을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실 종래의 態度概念으로서는 好惡次元에서 동일한 位置에 놓인 사람들은 그들의 態度的 構造도 동일하다고 간주

될 수 밖에 없다. 태도의 構造的 屬性에서의 個人差는 好惡次元에서의 位置로 概念化된 態度로서는 취급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規範의 立場의 이 문제는 더 나아가 好惡次元으로 환원된 태도의 正當性이나 適切性의 문제까지도 야기하게 한다.

물론 여기서 태도의 構造的 屬性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好惡次元上에서 같은 位置로 反應을 한다면 그들의 態度는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反問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개인의 태도의 構造的 特性和 그의 好惡次元上에서의 反應은 別個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Freedman, Sears 및 Calsmith (1978)가 “態度對象에 대한 認知(信念)는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態度(感情)는 매우 단순하다. 태도의 認知的 複雜性和 評價的 單純性사이의 대조를 이해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그리고 行動은 주로 이 단순화된 評價的 感情에 의해서 결정된다.” (P. 287)는 表現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이 견해는 態度에서의 個人間的 차이를 好惡次元上에서의 量的 差異로만 이해하려 할 때 妥當한 것이다. 즉 態度의 屬性을 好惡次元으로 환원된 感情으로서만 국한시켜 規定지를 때 정당하다.

그러나 태도의 本質이 정말 好惡次元上에서 量的으로 표현된 感情만으로 規定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하는 反問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환원하면 外顯的 反應이 같다고 하여 內面的 構造가 서로 다른 感情을 質적으로 같은 수준에다 놓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態度的 感情은 그것들이 실사 好惡次元에서 같은 位置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의 質的 屬性도 서로 같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어른과 유아의 “우리 어머니는 좋다”라는 表現이 外顯的 態度反應에서는 같다 하더라도 이 表現이 어른은 다른 어머니와의 비교의 결과로부터 얻어진 것인 반면에 유아는 자기 가족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 결과로써 얻어진 것이라면 이 두 態度反應을 質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과 같다.

Lewin (1935)은 心理現象에 대한 연구에서 밖으로 드러난 外樣에 기초한 表現型的 分析 (phenotypic analysis)과 그 外樣의 저변에 있는 因果的 構造에 기초한 因子型的 分析 (genotypic analysis)을 구분하여 주어진 現象의 構造는 후자에 의해서만 分析할 수 있

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두 접근사이의 混線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誤謬로써 유아와 성인사이의 밖으로 드러난 言語表現이 유사하다고 하여 그들 사이에 言語的 記號와 意味사이의 관계에 대한 意識도 유사하다고 보았던 發達研究들을 비평하고 있다. 外顯的으로 동일한 두개의 過程이 因果力動的 構造에서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으며 또한 因果力動的 構造가 유사한 過程들이 現象的으로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앞 절에서 제시한 經驗的研究에서 態度內變散의 크기에 따라 好惡次元에서의 개인의 태도가 그의 行動을 적절하게 豫言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결과는 態度內變散이 好惡次元에서 표현된 態도의 機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根據를 제공한다. 이렇게 볼 때 態도의 記述은 好惡次元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態도의 作用은 그 次元으로 완전히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환원하면 現象的으로 好惡次元上에서 유사하게 드러난 態度라도 內面的 構造에서 서로 다르다면 그것들이 外顯的으로 드러난 態도의 機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態度內變散은 앞에서 태도대상에 대한 개인의 信念體系의 同質性的 程度로서 규정되었다. 이 定義는 태도를 구성하는 認知內容들이 갖고 있는 評價的 意味의 다양성을 함축하고 있다. 態度內變散은 태도대상에 대한 認知內容 그 자체의 다양성이 아니라 그것들이 態度次元으로 환원되어 표현된 感情內容의 다양성인 것이다. 따라서 態度內變散은 태도대상에 대하여 個人이 얼마나 다양한 態度를 갖고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指標로 볼 수도 있다.

態度內變散은 統計的인 의미에서 原點數들이 平均을 중심으로 얼마나 異質的으로 分散되어 있는가의 정도와 合致되는 개념이다. 개개의 信念에서 반영된 態度(信念의 好惡價)들이 平均으로 合算된 態度(態度尺度에서의 態度)로부터 얼마나 分散되어 있는가의 정도로써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原點數를 平均으로 환산할 때 일정한 묶음의 誤差가 나타나는 것처럼 平均으로서의 態度도 일정한 묶음의 誤差를 갖고 있는 것이다. 態度內變散은 이에 대한 指標로서 平均으로서의 態度가 다른 態度로 대치될 수 있는 變散範圍로 간주될 수 있다. 이 變散範圍가 클수록 그 分布를 대표하

는 態度的 代表値로서의 機能은 약화된다. 마치 原點數 分布에서 變散이 클수록 平均의 代表値로서의 機能이 弱화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때 앞의 經驗的 연구에서 態度가 같다 하더라도 그것들의 機能은 다를 수 있다는 結果는 태도의 代表値로서의 機能에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機能面에서 弱화된 態度와 그렇지 않은 態度를 같은 次元에다 놓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태도의 質的 屬性의 決定要因으로서 態度內變散을 논의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態度的 構造的 屬性으로서 태도내변산이 갖는 意味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제기해 볼 수 있다. 특히 態度內變散을 前提할 때 종래의 態度概念은 어떠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대두된다. 앞에서 態度內變散은 同一態度對象에 대하여 여러개의 態度가 한 個人內에서 共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환원하면 여러個人들의 態度가 한 個人內에서 共存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態度에 대한 종래의 規範的 立場에서 볼 때 이와같은 狀況에 대한 陳述은 하나의 逆說로 밖에 들릴 수 없다. 모든 個人的 態度를 보편적 態度次元으로서의 好惡次元위에다 나열시켜 보려는 것이 規範的 接近의 立場이다. 물론 이 목적은 態度에서의 個人間的 차이를 비교 평가하려는 데 있다. 즉, 方法論的으로 個人間的 過程을 문제삼은 個人間 패러다임에 따라 態度를 概念化하려 하였다. 個人間 패러다임에서 개인의 態度에서의 變散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變散分布의 代表値로서의 態度的 “不確實性” 내지는 “測定誤差”로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이 패러다임에서 個人間的 비교는 각 개인마다 하나의 態度만을 가졌을 때 가능하다. 같은 개인이 여러개의 態度를 갖고 있다면 그를 다른 개인과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個人間 패러다임을 指向하는 한 같은 個人이 같은 對象에 대하여 여러개의 態度를 갖는다는 것은 論理的인 모순에 빠지게 한다. 따라서 그와같은 주장은 逆說로밖에 이해될 수 없다.

그러나 個人內 過程을 문제삼은 個人內 패러다임으로 態度를 概念化할 때 이 逆說이 定說로 바뀔 수도 있다. 또한 개인간 패러다임에서 태도의 曖昧性이나 測定誤差로서 간주된 態度內變散이 개인 내 패러다임에서는 태도대상에 대한 意味充滿性을 드러내는 것으로

새롭게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態度的 發生的 構造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態度는 經驗을 통한 學習의 산물로서 일반적으로 정의되어 왔다. 여기서 學習의 代行者는 보통 他人이 된다. 그것도 學習者에게 重要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他人이 된다. 이 重要的 他人이 價値를 부여하고 있는 意見이나 信念이 그와의 經驗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이식된다. 그리하여 그것들이 학습자에게 內面化됨으로써 그의 態度가 發生한다는 것이다. 이 過程은 결국 “他人의 것”이 “자기의 것”이 되어가는 過程을 드러낸다.

환원하면 外在化되어 있던 態度가 內在化하여가는 過程 즉, 態度의 內面化過程을 記述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개인은 한 他人에게서 물려 받은 하나의 態度만을 간직할 수는 없다. 개인은 삶을 통하여 서로 相異한 態度를 갖고 있는 많은 중요한 他人과 접촉을 갖게 된다. 따라서 그들의 態度도 內面化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실은 앞 절에서 개인은 한 태도대상에 대하여 다양한 信念들을 갖고 있다는 논의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신념으로 부터 얻어지는 態度도 다양할 것임은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의 態度가 다양하다는 것은 이전에는 個人間에서 나타나던 態度의 差異가 이제는 한 個人內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態度의 內面化過程이 “他人의 것”을 “自己的 것”으로 變形하는 과정이라고 볼 때 다양한 態度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곧 다양한 他人들의 態度를 자기 것으로 內面化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때 態度의 內面化過程은 個人間에서의 態度의 差異(態度間變散)를 個人內에서의 態度의 差異(態度內變散)로 變形시키는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은 결국 個人間이라는 “社會”가 個人內라는 “自己”속에 內面化하는 過程을 나타내는 것이다. Vygotsky (1978)는 人間の 高等精神의 發達過程을 個人間過程이 個人內過程으로 變形하는 過程 즉 社會的 過程이 個人的 過程으로 內面化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우리의 立場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個人的 態度는 規範的 接近이 지향했던 個人間過程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물론 發生的으로 볼 때 個人間的 態度에서의 差異가 個人內過程보다 먼저 발생한다. 그리하여 規範的 接近에서 처럼 好惡次元上에서 量的으로 表現된 態度로써 個人間的 비교

가 가능하다. 또한 이 段階에서는 個人內의 態度變化도 好惡次元에서의 量的 變動으로 記述할 수 있다. 그러나 個人間過程이 個人內過程으로 內面化되게 되면 그 狀況은 달라진다. 個人間的 態度들이 個人內에 內面化한다는 것은 서로 相馳되는 態度들이 한 個人內에서 共存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이와같이 共存하는 態度들을 好惡次元에서의 位置로 量的으로 記述할 수는 없다. 好惡次元에서 이들 共存하는 態度를 記述하려는 것은 이미 그 記述의 正當성과 適切성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앞서 지적한 人間性向에 대한 規範的 接近의 誤謬는 이 點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個人內에서 반영된 個人間的 態度를 正當하고 適切하게 表現하기 위해서는 好惡次元을 넘어서는 새로운 次元의 설정을 요구한다. 물론 이 次元은 好惡次元을 包括하지만 그러나 好惡次元에서 야기되는 正當성이나 適切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次元이 될 것이다.

이것은 態度가 “好惡次元에서의 量的 變動”에서 “새로운 次元에서의 質的 變形”을 하는것을 意味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한 次元에서 適切하게 記述될 수 있었던 態度가 나중에는 다른 次元에서 더욱 適切하게 表現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주어진 態度가 質적으로 變形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態度가 個人間에서 個人內로 內面化한다는 것은 態度의 “量的 變動過程”의 문제라기 보다는 “質的 變形過程”을 문제삼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때 個人內過程으로서의 態度內變散은 이 態度의 質的 變形過程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現象으로서 간주할 수 있다. 態度의 質的 變形은 먼저 社會的 水準에서 態度間變散이 나타나고 이어서 個人的 水準에서 態度內變散이 일어남으로써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李秀遠. 態度와 信念의 關係: 相反態度사이의 共通信念分析. 漢陽大論文集, 1981, 1, 31 ~ 56.
- 李秀遠. 態度, 態度內變散 및 行動. 社會心理學研究, 1982, 1, 101 ~ 123.
- 張聖洙. 態度內變散과 態度의 行動豫言力. 社會心理學研究, 1982, 1, 124 ~ 152.

- Allport, G.W.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olt, 1937.
- Bem, D.J., & Allen, A. On predicting some of the people some of the time: The search for cross situational consistencies in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1974, *81*, 506-520.
- Fishbein, M.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s about an object and the attitude toward that object. *Human Relations*, 1963, *16*, 233-240.
- Fishbein, M., & Ajzen, I.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5.
- Freedman, J.L., Sears, D.O., & Carlsmith, J.M. *Social Psychology* (3rd ed.), New Jersey: Prentice-Hall, 1978.
- Goldberg, L.R., & Werts, C.E. The reliability of clinicians' judgments: A multitrait-multimethod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966, *30*, 199-206.
- Harvey, O.J., Reich, J.W., & Wyer, R.S. Effects of attitude direction, attitude intensity and structure of beliefs upon different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8, *10*, 472-478.
- Irwin, M., Tripodi, T., & Bieri, J. Affective stimulus value and cognitive 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7, *5*, 444-448.
- Jones, E.E., & Gerard, H.B. *Foundations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Wiley, 1967.
- Lapierre, R.T. Attitude vs. Actions. *Social Forces*, 1934, *13*, 230-237.
- Lewin, K. *A dynamic theory of personality*. New York: McGraw Hill, 1935.
- Likert, R. A technique for the measurement of attitude. *Archive Psychology*, 1932, No. 140
- Snyder, M., & Monson, T.O. Persons, situation, and the control of 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5, *32*, 637-644.
- Tesser, A. Self-generated attitude change.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II, New York: Academic Press, 1978.

- Thurstone, L.L., & Chave, E.J. *The measurement of attitud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29.
- Vygotsky, L.S. *Mind in Society*. In Cole, M., John-Steiner, V., Scribner, S., & Souberman, E. (Ed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 Wicker, A.W. Attitude vs. Actions: The relationships of verbal and overt behavioral response to attitude objects. *Journal of Social Issues*, 1969, 25, 41-78.